

## 올바른 통신 예절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건설통신 이용문화 확산 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피해의 정도가 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즉 병원내, 항공기 안, 운전중에서의 핸드폰 사용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오민영 / 정보통신부부가통신과

'98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1217만명, 즉 네사람에 한명 정도로 가입되어 있어 인구대비 이동전화 보급률은 핀란드, 스웨덴, 홍콩 등에 이어 세계 7위, 이용자수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위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의 보급은 급속히 확산되어 필수적인 통신수단이 될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97년 10월 PCS 3사가 이동전화시장에 진입한 이후로, 겨우 1년여밖에 되지 않아 통신과 관련된 이용문화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이 도서관,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었으며, 전자파에 의해 항공기, 병원 등에서 초정밀기기의 오동작을 유발시키거나 불면증·두통·맥박 이상 등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까지 초래하는 사례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운전중, 위험한 작업시 등 정신을 집중하여야 할 때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뜻하지 않는 사고를 초래하는 등 이동전화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첼리스트 정명화씨 연주회에서 연주 도중에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려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또, 대한주부클럽 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행기내, 병원안 등과 같은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하는 구역에서 휴대폰을 꺼둔다는 사람이 461%에 불과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분별없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통신이용 예절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가 유용한 문명의 이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 제조자, 언론사 및 관련 정부 산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세미나 개최, 공익광고 방송, 표어 및 수기 공모 등 올바른 통신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

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꼭 필요한 경우 일정 장소에 전파블럭장치의 설치, 운전중 휴대폰사용 규제 등 법·제도적인 측면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통신이용 예절과 관련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해 규제법을 제정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는 '98.1월 일간지「르파리외」이 건전통신이용문화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7%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제정을 찬성하고 39%가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프랑스도 이동전화 남용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프랑스는 이동전화 규제관련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이어폰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음식점 등의 벽이나 테이블 위에 금연표지 처럼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그림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 우정성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파블럭장치 설치 문제는 통신편의 향유권과 정숙유지확보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중폐해가 심각한 공연장 등 특정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일본 관동전기통신감리국에서는 건전한 통신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휴대폰화 등의 이용매너에 관한 표어(특선 : 때와 장소를 골라 쓰는 휴대 매너, 준특선 : 운전중 휴대전화는 휴식중)를 모집하여 이용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차량운행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의 제도화를 준비중에 있으며 일정반경의 휴대폰 송·수신을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전파블럭제품(69,000엔~150,000엔)이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전

파를 차단하여 휴대폰의 송·수신을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제품이 등장하였고,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 홍콩, 미국 등에서는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금하는 법률을 시행중이거나 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10월 이동전화 사용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통신예절 소비자지침서를 통해 휴대폰예절 10계명(병원내 사용금지, 볼륨을 줄일 것, 공공장소에서 꺼들 것 등)을 발표하였으며 통신과소비 추방 전국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통신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언론사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건전통신이용문화 확산 운동을 하나로 결집시켜 건전통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동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폐해의 강도에 따라 법·제도 등을 통해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캠페인을 통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우선 이동통신 남용에 따른 폐해 유형을 장소 및 그 폐해 강도에 따라 A, B, C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규제의 강도도 다르게 정한다. 즉, 지하철, 레스토랑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지역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 이용을 자제하도록 캠페인 등을 통하여 유도해 나가고, 음악회, 도서관 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장소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가는 동시에 전파차단장치의 설치를 하여 원천적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원 건물내, 항공기내, 운전중과 같이 자칫 인명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

는 곳에서의 사용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적극 규제·처벌하여 나간다는 원칙이다.

〈 피해 강도에 따른 유형분류 〉

분 류	장 소
A유형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내, 레스토랑, 호텔로비 등 사용하더라도 시끄럽지 않게 사용해야할 장소
B유형	음악회, 도서관, 등과 같이 휴대폰사용을 금지할 장소
C유형	병원, 항공기내, 운전시와 같이 휴대폰 사용을 절대 금해야 하는 장소

정보통신부가 이와 같은 원칙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전통신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계획은 첫째로 건전통신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사업자, 시민단체, 언론사, 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건전통신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 선도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전통신이용문화 정착의 파급효과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세미나 개최 시기는 광고, 포스터 제작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월초로 결정하였다.

둘째로,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전통신이용문화 관련 공익광고를 만들어 신문, 방송을 통해 건전한 이동전화 사용 홍보를 해나가는 동시에, 건전통신문화 정착과 관련된 표어 및 수기를 공모하여 그 중 10개 정도의 표어를 선발하여 일반이용자 및 청소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향후 이동전화 각사업자들은 자사의 TV·신문광고와 홈페이지와 이용자에게 DM발송시, 회사의 월보 등 각종 유인물에 건전통신문화와 관련된 표어 공모에서 선발된 표어 및 수기 등을 삽입하고, 매년 각사별로 고객을 위한 가곡의 밤, 가수초청 행사 등 회사의 각종 이벤트 개최시 건전통신 문화와 관련된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국민

및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건전통신이용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건전한 휴대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캠페인 추진방안과 때를 맞추어 11월 2일 「스피드 011 통신 예절단」 발대식을 갖고 다각적인 이동전화 바로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국 44개 지점에 '통신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점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통신예절을 홍보하고, 3천여 011가맹점 및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광고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은 전국대학 방송국·학보 및 학생회와 연계하여 건전한 휴대폰 예절을 홍보하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이 공급할 단말기에 속삭이는 정도의 음성으로도 상대가 알아 들을 수 있는「에티켓 모드」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산하단체를 통한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정보문화센터의 월간지 '정보화로 가는 길'과, '정보문화의 달' 행사 등에서 건전통신이용문화와 관련된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정보문화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50여개 기관의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해 건전통신 이용문화 캠페인을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가두 캠페인, 차량에 스티커 부착운동 등을 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등을 통해 건전통신문화와 관련된 외국의 법,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협회의 회원사들로 하여금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 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피해의 정도가 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즉 병원내, 항공기 안, 운

전중에서의 핸드폰 사용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건축관련 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병원 등의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항공관련 법,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하여 항공기, 운행중인 자동차 등에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명문화 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휴대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싱가포르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170싱가포르달러(103 미국달러)의 벌금과 함께 휴대폰을 압수하며, 대만에서는 대만돈 15만 달러(약 4500 미국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처한다.

또한 법의 규제 외에도 건전한 통신 이용문화를 정

### 〈 이동전화 이용폐해 대처방안 〉

구분	A유형	B유형	C유형
장 소	대중교통, 호텔 로비 등 타인에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장소	음악회, 도서관 등 타인에게 피해의 정도가 큰 장소	병원, 항공기, 운전중 등 피해 정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재 정도	사용은 가능하나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사용 제한	
대 책	사업자, 민간시민단체 등을 통해 통화 예절을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사용규제 규정 명문화

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98년 대학생 벤처 경진대회에서 일정지역내에 들어가면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자동으로 진동상태로 전환시켜 주는 장치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향후 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도 이동전화 등의 전자파가 의리기기 및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공연장, 회의장, 도서관 등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는 하되 정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음성은 들려도 이쪽의 음성은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또는 벨소리가 자극적이지 않은 단말기개발 등 각종 통신예절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이동전화 예절교육을 실시할 기관으로는 TV, 신문 등 매스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59.8%, 이동전화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사람이 21.1%, 소비자 및 사회단체가 추진해야 한다는 사람이 14.0% 등으로 건전통신 이용문화 정착운동은 법적·제도적 규제보다는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건전통신 이용문화 정착운동은 캠페인 및 최소한의 규제로 꼭 필요할 때만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는 전원을 꺼 놓는 통화예절과 약속과 예약문화 등의 생활화로 굳이 길이나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들은 사용자, 소비자 단체, 사업자, 언론기관 등과 함께 정부가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여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